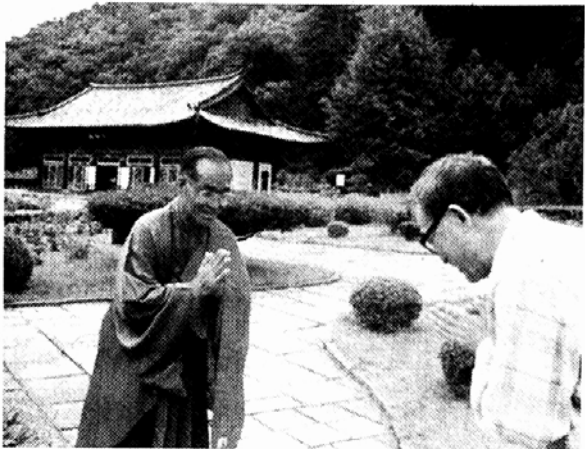


“북한 불교를 읽자”...출판가도 ‘北風’

답사기·연구서 독자 손길 머문다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면서 북한 불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출판가에도 북한 관련 불서들을 찾는 불자들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눈앞은 독자들은 이미 북한불교 관련 불서들을 통해 북한불교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현재 북한불교의 수준과 현황을 알 수 있는 불서들을 어떤 것이 있을까.



◀신하여 나의 신하여의 저자 고은 시인이 북한의 최대 사찰인 보현사에서 북한스님과 인사하는 모습.

출판가에 나와 있는 북한불교 관련 불서들은 크게 3부류로 나뉜다. 사찰 및 문화유적 답사기, 북한불교 연구서, 그리고 북한동포의 실상 등에 관한 책들이다. 이 가운데 답사기가 주종을 이룬다. 1925년 독일인 수도자 노르베르트 베버가 금강산의 사찰들을 둘러보고 쓴 <수도자와 금강산(푸른산)>을 비롯 1940년대 북한불교와 1990년대의 북한불교 50년을 통해 북한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한 정태혁 교수와 범타 스님의 북한불교기행집 <북한불교답사기(민족사)>, 유홍준 씨의 <나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중앙M&B)>, 고은 시인의 <신하여 나의 신하여(중앙M&B)>, 풍수지리학자 최창조(전 서울대 교수) 씨가 펴낸 <북한 문화유적 답사기(중앙M&B)> 등이 대표적이다. 또 최근 출간된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서울대출판부)>, <동독 도관수 레셀의 북한 추억(효형출판)>, <결재를 따라가는 금강산 여행(대원사)>을 비롯 <나는 지금 금강산으로 간다(김영사)>, <북한의 지리여행(문예신책)>, <금강산 유람기(전통문화연구회)> 등

을 통해서도 북한불교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북한 지역에 건립됐던 사찰을 총정리한 <북한사찰연구(사찰문화연구원)>와 지역별로 사찰과 사지, 그리고 문화재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는 <북한의 사찰(일지사)>은 북한불교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만만치 않은 분량의 노작이다.

이들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찰들은 대부분 한국불교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곳으로 귀중한 문화재가 소장돼 있는 곳들이다. 하지만 분단 55년 사이에 신앙의 공간이 아니라 관광지나 휴식공간으로 전락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

이 아닐 수 없다. 답사기류의 책들이 북한의 사찰 현황 등 걸모습을 살핀 책이라면, <북한불교연구(민족사)>는 북한불교 속살이라 할 수 있겠다. 1990년대를 전후한 북한불교의 현주소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학문적으로 정리한 종합 연구서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 △북한불교의 실상 △남북불교 관련자료 △북한의 현존 사찰현황과 국·보물급 문화재 등 방대한 내용을 수록해 있다. 정토출판사가 통일마당 시리즈로 내놓은 <통일로 가는길>, <1999 민족의 희망찾기>,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등도 북한 불교와 관련해서 내놓을 수 없는 책이다. 이 시리즈는 경제난과 식량난 이후 급속히 변모한 북한 동포들의 실상을 알 수 있게 하는 책들이다.

이밖에도 <북한 고고학 미술사 용어집>(백산 자료원), <북한의 지리여행(문예신책)> 등 그동안 참고에서 잠자고 있던 책들도 먼지를 털고 불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에서 불교는 공산화이래 침체 또는 폐쇄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불교의 자취는 아직도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이는 불법이 체제와 이념을 초월한 것임을 알게 한다. 따라서 북한불교 관련 책들은 북한불교를 온전히 이해하게 함은 물론 남북한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통일의 기틀을 탄탄히 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opia.com)

‘계학약전 주해’ 출간

한국불교 최초 계율입문서  
효탄스님, 현대어로 재구성

한국불교 최초의 계율 입문서인 석전 스님(1870~1948·박한영)의 <계학약전(譯解)한 계학약전 주해>(동국대역경원)가 출간됐다.



이 책은 <사분율>, <법명경> 등 한국불교 전통 계율을 간추린 것으로, 효탄(동국대 강사) 스님이 등사본 원본을 입수, 현대적 언어로 새롭게 꾸몄다.

<계학약전>은 일본불교의 혼인·육식의 풍토가 온연증 한국불교에 스며들기 시작한 일제 강점기에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당시 한국불교계는 혼인·육식 등의 문제에 대해 ‘금지’ ‘수용’ 등의 이견이 서로 맞서고 있었다. 특히 만해 스님은 <조선불교유신론> ‘불교의 앞날과 승려의 결혼과의 관계’에서 대처를 장려해, 이 논쟁에 불을 당겼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석전 스님은 누구나 읽고 전통의 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책을 펴냈다. 값 8천원.

오중욱 기자  
(gobacou@buddhopia.com)

의천스님 생애-사상  
청소년 눈높이로

차차씨서 ‘대각국사 의천’

천태종 개창자 대각국사 의천(1055~1101)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청소년들이 알기 쉽게 정리한 <대각국사 의천>이 나왔다.



말갈출판사가 불교사상가 전집시리즈 두 번째 권으로 출간된 이 책은, 의천 스님의 생애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천태·화엄·원효 등에 대한 스님의 사상적 특징과 대표적 시(詩)와 저술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도 부록으로 스님과 관련된 문헌 자료도 수록. 청소년들이 의천 스님의 원용무애한 사상과 대중들에 대한 애정 등 모든 분야를 두루 살필 수 있는 데 부족함이 없다.

무엇보다 이 책이 눈길을 끄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 스님의 삶이다.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를 앞에 우뚝 선 선각자이자 수행자로서 의천스님의 삶은 청소년들에게 사교가 될만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기 관련 문장은 청소년들의 손길을 이끈다. 값 6천8백원.

김중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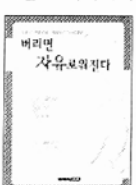
새로 나온 책



▲선가귀감(서산대사 지음, 박헌 해설)= 불교텔레비전에서 ‘바로 보는 동양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헌 한국학연구소장이 서산대사의 수행지침서 <선가귀감>을 새롭게 풀었다. ‘노릇돌’이라는 이름으로 해설한 이 책은 이론적인 번역에서 벗어나 생활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동양의 유가와 선가의 지혜가 불가와 하나로 녹아 있어 여러 시각에서 서산대사의 말씀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만의 특징이다. 값 8천원.



▲세상의 어머니(유재기 지음, 해림사)= 청담 효자상, 인천시 효자상, 국민운동본부 효자상을 수상, 효자 작가로 알려진 유재기 시인이 쓴 어머니에 대한 보은 시집. 이 시집은 한 어머니의 삶의 기록이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삶과 무관하지 않은 않다. 바로 이 시대의 모든 어머니들과 그 자식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값 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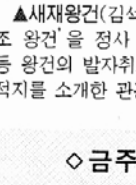
▲버림받은 자유로워진다(방귀희 지음, 아세아미디어)= 사회·관습·성(性)·문화적 편견 버리기. ‘21세기는 희망적이다’, ‘고향사람이 좋다’, ‘나는 건강하다’, ‘여성차별은 남성 때문이다’ 등 우리가 버려야 할 7가지 편견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글쓴이는 편견을 하나씩 벗어 던질 때 우리는 참다운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값 7천원.



▲인디언의 복음(E.T 시몬 지음, 김원중 옮김)= 인간성을 황폐화시키고 자연을 파괴하는 오늘의 병든 문명을 향해 외치는 인디언의 메시지. 자연과 인간의 삶을 하나로 보는 인디언의 세계관과 자연관. 이 책은 이러한 인디언들의 삶과 철학을 담겨있다. 시애틀 추장의 연설문을 비롯 인디언 추장들의 어록을 모은 부록과 인디언들의 생활과 문화를 알 수 있는 삽화가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값 8천5백원.



▲팔자타령에는 울지가 않아(김원환 지음, 우리)=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운명, 팔자 그리고 인생에 대해 바른 이해를 돕고 나아가 각자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김원환(수선회 부회장) 씨가 쓴 이 책은, 팔자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풀린 사람들, 행·불행은 팔자소관이 아니다. 팔자 고치기 심요법 등 모두 8부로 구성돼 있다. 값 9천원.



▲새재왕건(김석태 편저, 운술)= KBS 대하드라마 ‘태조 왕건’을 정사 중심으로 재조명하고, 문경생애 촬영장 등 왕건의 발자취가 담긴 문경의 역사와 유물, 그리고 유적지를 소개한 관광 안내서. 값 7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사인물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만행-하버드에서 회계사까지	전 각	열림원
2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3	법구경(작은정경1)	지 현	민족사
4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림
5	마하리쉬의 복음	대 성	탐구사
6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달리아라	문이달
7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배양갈이	진 재 성	선재
8	위빠사나 성자 아짚론	김 열 권	불광
9	티벳해탈의 서	피드 샴바	정신세계사
10	지대방 이야기	송광사 경원	법공양

도서 안내: (02)737-0695

미국 청년 동양의 영적진리 체험기

바가반 다스 '내가 만난 내 영혼의 성자들'

1964년 18살에 인도로 건너간 미국 청년 바가반 다스. 히말라야 일대를 돌며 수행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많은 성자들을 만난다. 인도의 큰 스승으로 불리는 카롤리 바바, <성자가 된 청소년부> 르 우리에게 알려진 바바 하리다스, 정신세계 분야의 고전으로 꼽히는 <지금 여기에 살라(Be Here Now)>의 저자 람 다스, 초월 명

상의 창시자 마하리쉬 마헤시 등, 이 가운데 그는 카롤리 바바를 영적 스승으로 모시며 인도의 요가, 티베트불교, 사마니즘, 초월 명상 등의 체험을 한다.

바가반 다스의 자서전 <내가 만난 내 영혼의 성자들(Be Here Now)>(물병자리)은 이런 수행자들과 만난 체험담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인도이야기이다. 그가 직접 체험하며 바라본 인도에 대한 다양한 모습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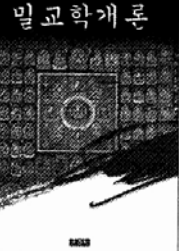
글쓴이는 힌두-불교적 동양의 정신세계와 기독교적 서양의 종교 신세계를 종합함으로써 신앙의 조화로운 통합을 제시한다. 비유를 섞어 설명하고, 명상에 잠기고, 좌도 탄트라에 입문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항상 초월적인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은 깨달음을 향한 길을 걸



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장애와 내적인 분열 등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그는 진정한 영성은 관습적인 신앙 체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진정한 영성은 초월적이란 게 그의 해석이다. 값 8천5백원.

김중근 기자

종석스님 '밀교학 개론' '밀교 궁극증 풀자'



한국불교의 외례 곳곳에 밀교적 요소가 많이 있지만, 여전히 낯설기만 하다. 심지어 이단시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밀교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인가. 신간 <밀교학 개론(운주사)>은 그런 궁극증을 풀어주는 책이다.

종석(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스님이 쓴 이 책은 밀교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밀교의 기본적 특징을 중심으로, 밀교가 탄생하게 된 동기와 시대구분 및 전파, 그리고 밀교의 실천도 등을 증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모두 7장으로 구성된 <밀교학 개론>은 1장에서 밀교의 핵심인 다라니에 대한 의미와 밀교의 전개과정, 그리고 다양한 탄트라에 대해, 2장에서는 밀교의 심주교교관론(十住心教判論)을 전태종과 화엄종의 교관론과 비교하

고 있고, 3장에서는 육대緣起(六大緣起)사상으로 중심으로 밀교의 교리를 고찰하고 있다. 또 4장에서는 대일여래로 대변되는 밀교의 불신론을, 5장에서는 만다라의 의미, 성립배경, 특징 등과 함께 밀교의 대표 경전인 <대일경>과 <금강정경>의 내용을 살피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은, 밀교의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지는 않지만 밀교에 대한 개략적인 윤곽을 그릴 수 있는 입문 및 개론서로 손색이 없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우주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명상 여행

신간

Hyakujō. The Everest of Zen  
禪의 최고봉 백장과 대주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8,500원

깨달음의 빛은 갑자기 다가온다. 그곳에서 우주 전체가 열릴 것이다. 백장은 선원(禪院)을 최초로 정비한 것으로, 대주는 돈오(頓悟)의 사상을 설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선사상을 일본의 시인인 바쇼의 짧고도 그럴 같은 시와 함께 그려놓았다.

신간

The Great Secret  
소중한 비밀 까비르 강론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11,000원

가슴 속에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에 순종하라. 이 강의는 까비르가 신을 향한 사랑을 노래한 열 편의 시에 대한 해설이다. 그는 말한다. 신의 얼굴을 찾지 말라. 신은 어떠한 것이든 좋다. 신은 사랑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다.

신간

The Hidden Harmony  
서양의 붓다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오소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10,000원

삶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변화만이 영원하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가장 심오한 영혼이며 진정으로 보기 드문 꽃이다. 그에게는 삶에 대한 어떠한 이론도 없으며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이다. 그가 역설적인 삶의 문으로 안내할 것이다.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 01. 탄트라 秘典 I
- 02. 탄트라 秘典 II
- 03. 탄트라 秘典 III
- 04. 탄트라 秘典 IV
- 05. 법구경 I
- 06. 법구경 II
- 07. 금강경
- 08. 반야심경
- 09. 탄트라, 더없는 깨달음
- 10. 심우도
- 11. 신심명
- 12. 허안 연꽃담(대사 강론)
- 13.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
- 14.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
- 15. 禪, 빈 거울에 담긴 노래 | 미조
- 16. 마음을 버려라 | 임제
- 17. 오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 | 조주
- 18. 텅 빈 가슴을 넘어서 | 남전
- 19. 법의 연꽃 | 이규
- 20. 禪의 최고봉 | 백장과 대주
- 21. 내 사랑 인디아
- 22. 소중한 비밀 | 까비르 강론
- 23.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 24. 서양의 붓다 |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 색의 책은 출간 준비중입니다.  
★ 책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mail: taellipub@chollian.net  
tel\_927-2831-4 fax\_924-3236

라이프타임  
출판사